

다들 우리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



KOREA
FOUNDATION
FOR WOMEN
20 YEARS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기획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 책 자세히 보기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저자를 만나다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슈와 현장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
혼자 사는 여자 히스토리, <비혼 1세대의 탄생>
양육미혼모지원사업 맘업프로젝트 공부방 지원 후기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이계경 회장
WNC 김혜원 대표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되어 달렸다”



김효선

한국여성재단 이사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여성 마라토너들의 투쟁기에 존경과 감사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혼육시키는 것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미한 존재가 전 세계에서 3천만명 이상의 확진자,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앞으로도 그 피해를 예측할 수도 없다. 이 무서운 역병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멈추고, 비우고, 멀어지는 것이란다. 무엇이든 ‘더 더...’ 하던 더하기 세상을 살다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는 뼈기를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영 쉽지 않다. 자연 생태계 어느 한 자리에서 자족적으로 살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침공으로 거처를 잃으면서 역공에 나선 까닭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어서 빨리 바이러스들이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끼리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도 바이러스의 역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년째 개최해오던 여성마라톤 대회를 ‘랜선스포츠’로 돌려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등록만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운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 아쉬움을 대신해 참가비 일부를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에 기부해서 새로운 연대를 만들었다.

여성마라톤은 1만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이는 최대 규모의 여성행사였다. 걷기 참가자가 많지만 그동안 연인원 26만 명이 지구 46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걷고 뛰었다. 당연해보이지만 사실 여성들이 힘껏 달리기까지는 여성들의 치열한 투쟁사가 있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며 인간한계에 도전한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의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 40km를 달렸다는 한 병사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전쟁, 승리, 군인,

같은 남성적 키워드의 결정체였던 마라톤은 당연히 남성들만의 무대였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승리의 서사에 ‘열등한’ 여성들이 참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가부장제의 본능적 자기방어였을 것이다. 마라톤에 초대받은 손님, 참가자격 미달자들이 금기에 도전한 이야기. 숨어서 달리고, 변장하고 달리고 이름 바꿔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린 이야기, 그래서 끝내 성공한 위대한 여성서사가 여성마라톤에 들어있다.

여러 도전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건 1966년의 로베르타 김과 1967년 캐서린 스위처의 도전기이다. 한 여성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1966년 23세의 여성 마라토너 로베르타 김은 번호표 없이 남자의 이름으로 남장을 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가 다른 출전자가 모두 출발하고 난 뒤에 번외 코스를 뛰었다. 다음 해 20세의 대학생 캐서린 스위처는 이름을 바꾸지만 남성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이니셜을 사용해 등록하는 데 성공해서 ‘261’번 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었다. 후드티를 입었지만 긴머리에 립스틱까지 여성의 모습으로 출전했다. 달리는 중에 여성임이 드러나자 조직위원장이 쫓아와서 ‘당장 번호표 내놓고 나가라’고 소리 치면서 밀쳐내려 했지만 그의 조력자들이 내쫓으려는 조직위원장을 막아내면서 ‘죽을힘을 다해 뛰라’고 독려했었다. 캐서린 스위처는 4시간 20분이라는 공식 마라톤 완주 기록을 갖은 최초의 여성이 됐지만 실격처리 됐다. 실격의 이유는 금지된 종목 참가, 제3자 조력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녀들은 왜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달리고 싶었을까? 캐서린 스위처는 “여성에게 필요한 건 자신을 믿고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다.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차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여성으로서 용기를 내보자. **W**



말들에게 희망을 2020년 가을호 NO.144

한국여성재단의 지난 20년의 기록을 담아 6명의 글쓴이와 함께 지난 8월 발간한 기념책,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의 표지 모습이다.

후원(한국여성재단)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omenfund

유튜브

www.youtube.com/user/k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Contents

02 사립문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되어 달렸다

김효선 한국여성재단 이사 /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기획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04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 책 자세히 보기

07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저자를 만나다

09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슈와 현장

10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

12 혼자 사는 여자 히스토리, <비혼 1세대의 탄생>

14 양육미혼모지원사업 맘업프로젝트 공부방 지원 후기

만나고 싶었습니다

16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이계경 회장

18 WNC 김혜원 대표

여성단체와 함께 뒀다

20 故 윤정주를 기리며_한국여성민우회

재단소식

22 재단활동 2020년 7~9월

24 기부자명단 2020년 7~9월

26 수입과 지출 2020년 1~9월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다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 단행본에 담았다

여성이 여성을 위해 기금을 모아 일한 지난 20년간의 기록 ‘모금’과 ‘배분’이라는 양바퀴로 딸들에게 희망을! 여성운동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우리나라 첫 여성 중심 민간공익 재단의 설립과 활동이 이 책 속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책 속으로

이 책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의 지난 20년간 역사를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와 변동의 맥락에서 진단하고,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해 온 재단의 주요한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살펴봄으로써 재단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 변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했습니다.

서문을 포함해 총 다섯 개의 장에는 1999년 한국여성재단이 처음 설립되던 당시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물결로 확장 분화하여 온 복잡다단한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여성재단의 설립과정과 활동이 담겨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20년 역사에서 다양한 시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해경(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재단 제3대 이사장), 홍미희(前한국여성재단 연구사업팀장,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장),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송다영(인천대학교 교수), 김영선(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김엘리(성공회대 외래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발간사 중에서

한국여성재단은 기부와 연결되는 우정을 키우는 프렌드레이징으로, 일회적 시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재단으로, 풀뿌리 여성운동의 비빌 언덕으로, 미래여성들의 디딤돌로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서문 이해경

‘한국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한 기록’ 중에서

한국여성재단의 미션은 대중모금과 배분을 통해 여성운동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모금과 배분이라는 양바퀴로 성평등 사회를 향해 달리는 마차와 같은 모습의 사회적 건축물이다. 마차가 달려갈 방향에 관해서는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에 진영의 구분없는 합의를 담았다. 다만 어떻게 얼마나 모금하여,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한국의 여성운동을 지원하고 견인할 것인가가 한국여성재단의 실존의 질문이었다. (p.16)



제1장 홍미희

‘한국여성재단설립,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긋다’ 중에서

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낸 선배 활동가들의 혜안, 열정과 패기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 그들은 재단설립 전 헌신으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여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후 여성계가 연대하여 가족법 개정, 고용평등법 제정,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 자족하지 않고, 재단설립자들은 여성운동에 우호적이었던 정치적 기회를 포착하여 후대 여성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p.34-35)



제2장 김은희
‘여성운동의 벚بار리, 지역 풀뿌리 활동가들의 비밀 언덕’ 중에서

스무살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20년간 여성운동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왔다. 특히 성평등 사회 조성사업은 매년 “여성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설에서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p.73)

재단 지원사업 구성을 보면 성평등 사회 조성사업을 포함한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영역 외에도 여성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 및 돌봄사회 지원, 여성기본인권보장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 사업들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재단의 비전으로 수렴된다. 재단 지원사업 전체가 성평등 사회 조성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p.80)



제3장 송다영
‘소외에서 주제로’ 중에서

여성복지사업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여성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현물, 현금,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접근하다보니, 마치 여성들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2010년 이후 ‘여성복지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기본인권보장’과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이라는 사업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성 기본 인권보장 영역에서는 여성가장 및 미혼모 지원,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성폭력 및 성매매 여성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지원’ 영역에서는 다문화 여성과 지역사회 내 돌봄사회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p.104-105)



제4장 김영선
‘사람을 키우는 재단으로’ 중에서

2018년 1월, 서지현 감사의 8년 만의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를 전후한 미투운동의 시작, 새로운 세대의 온·오프라인 집단 세력화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위시한 분리주의와 해방역시위로 페미니즘 운동 내 갈등과 논쟁 촉발 등), 최근의 한국사회의 페미니즘 시대정신 속에서 개개인 여성들의 체계적인 여성주의 학습에 관한 갈증과 열망, 변화에의 참여 열기가 뜨겁게 고양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새로운 주체 구성 및 여성주의 기획·실천의 자원을 모으고 배분하는 데 여성재단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탐색해보려 한다. (p.134~135)



제5장 김엘리
‘새로운 페미니즘의 디딤돌’ 중에서

한국여성재단이 연결망이자 공론장인 여성회의를 기획한 것은 무엇보다 여성운동의 동력을 만들고 지속하고자 한 것이었다. 상황은 어땠을까?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되는 페미니즘은 그 급진성을 잃어가고, 시장에 포섭된 페미니즘은 개인적 소비문화 안에서 탈정치화하는 세대였다. 게다가 1980년대 급진성을 표방하며 출현한 여성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고 새로운 여성운동 주체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지만 서로 단절된 채 산재했다. 이 가운데 ‘좀 더 나은 여성의 삶과 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은 한국여성재단의 촉각이자 활동 사업이 됐다. (p.171)

차례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다’

발간사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20년 타임라인

서문 이해경

한국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한 기록

1. 모금형 여성주의 공익재단의 탄생
2. 100인 기부 릴레이와 기업모금 전략의 선택
3. 모금형 여성주의 공익재단의 책임성
4.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시작, 여성회의
5. 한국시민사회의 건강한 지표로

제1장 홍미희

한국여성재단 설립,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긋다

1. 재단의 설립 과정과 의의 - 여성운동의 위대한 성과물
2. 지원사업의 특징과 의의
3. 모금성과와 특징
4. 환경변화와 한국여성재단의 대응
5. 한국여성재단의 친구들
6. 스무 살의 한국여성재단, 새로운 도전들

제2장 김은희

여성운동의 벚바리, 지역 풀뿌리 활동가들의 비밀 언덕

1. 무엇보다, 절실했던 시작
2. 여성운동이라는 아름답드리나무의 밑동 같은 존재
3. ‘여성재단 다운’ 방식이 만들어가는 가능성
4. ‘풀뿌리 여성운동’을 일군다는 의미에 관하여

제3장 송다영

소외에서 주제로

1. 부족이나 결핍이 아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
2. 여성복지(여성인권, 다양성, 돌봄 관련) 사업 개괄과 흐름
3. 영역별 사업의 전개와 평가
4. 대상자를 넘어 주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지원사업이 되기 위하여

제4장 김영선

사람을 키우는 재단으로

1. 여성 임파워먼트, 무엇을 담아야 하나?
2. 장학사업을 통한 여성, 활동가의 공부 지원
3. 여성활동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자 협력
4. 재단 사람들(과/의) 여성주의 임파워먼트

제5장 김엘리

새로운 페미니즘의 디딤돌로

1. 다양한 과량의 결들을 드러내며
 - 다양성과 연대, 지속가능성
2. 한국여성운동의 전환 만들기
 - 2011 여성회의와 2014 여성회의
3. 지속가능한 페미니즘 물결 이어가기
 - 2016 여성회의와 2018 여성회의
4. 신생 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해
5. 페미니즘들의 비전 되기

[부록] 한국여성재단 연도별 지원사업 W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다’ 저자를 만나다

한국여성재단의 20년 역사에서 다양한 시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6명의 저자, 그들은 책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다>의 저자로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총 6명의 저자 중 네 분을 통해 그 배경과 발간 소감 그리고 이 책의 발행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인터뷰를 통해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

‘딴 번 지원과 기센 백’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운동의 다양성을 만드는 단량이다. 한국여성재단이 이토록 살가운 것은 여성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도록 애쓰는 열산 기운에서이다. 영국의 페미니스트 사라 아레드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딴 번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던 언어나 개념을 만드는 일은 바쁜 딴이 나도록 애쓰는 과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재단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불모지에서 재단을 만들고 20년 동안 딴 번 지원을 해왔다. 그 기록을 남기는 일에 난 저자로 참여했다. 여러 현장에서 대항한 페미니즘들을 칭송하고 실천하는 여성들의 행보를 여성들이 ‘여성회’에 모여 다시금 그려나간 그 때를 기록했다. 선배들이 한 운동의 역사를 소환하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운동의 역사나 연결하면서 여성운동의 미래를 그린 여성들에 관한 기록은 이제 기억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 <여성미래를 편딩하다>는 불운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 여성들의 실천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불운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운동의 기센 백임을 이 기록이 낱알 무렵 알게 됐다. 마치 ‘우리에게도 백이 있어’라고 소리치는 의기양양한 아이처럼 가슴에 힘이 깎 들어갔다. 기센 백과 딴 번 지원은 숨 막히도록 답답한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참 반가운 선물이다.

김영선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전공 교수

‘여성단체의 자기 기록 생산을 편딩하길’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개설 교과목 「여성운동 역사와 쟁점」 세미나의 쪽글쓰기 과제를 강의자인 내가 제시한 토크에는 ‘여성사, 여성운동사, 여성단체사 쓰기 작업은 왜 필요한가’, ‘자기 학문—여성학—의 역사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등의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여성운동을 역사 맥락화 하면서 동시에 당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을 둘러싼 쟁점을 제도, 운동, 담론의 관계성을 통해 살피려는 이수영의 초반부에서는 집단 기억과 기록, 역사를 둘러싼 재현의 젠더 정치학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룬다. 한국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며 주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온 여성들의 이야기는 삶이 지워지거나 여성을 남성의 보은적 존재로서 기술히려는 역사 서술에 있어 그 자체가 페미니즘 실천이다.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 역시, 여성단체들이 자기 기록 생산 과정에서 고민했던 위의 문제들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기록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20년 출판 판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고민과 협업에서 태어난 이 책은 이제, 한국여성사의 중요한 한 결실로서 또 다른 역사적 의미에서의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4장. 사람을 키우는 재단” 챕터 저자를 함께 하며 자기 학문의 역사, 자기 운동의 역사를 아는 것의 의미를 나 스스로 조금 더 갱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김은희
여성운동활동가
前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활동가들에게
각자의 각별함으로 만나고 서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여성운동의 그물망’**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보고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여성운동의 중요한 역사이기도 한 한국여성재단이 걸어온 20년이란 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에게도 새롭고 새로운 과정이었기에 감사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켜켜이 쌓인 성평등사업 기록과 보고서들을 들춰보면서 오래전 신참 활동가였던 나를 다시 만나게 되어 빙글 미소 지을 수 있었고, 지우사업이라는 방식으로 ‘기록이주여성’이나 ‘미할필’ 의제가 새로운 젠더이슈로 발견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장면들도 새삼 감동스러운 순간으로 되새길 수 있었다.

과연 나는 한국여성재단과 얼마나 관계 맺고 지내왔던가 하며 떠올랐던 물음표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뒤늦은 공부에 젠더법학과 여성정책을 전공으로 삼았던 대학원을 마치고 여성단체 활동가로서의 삶을 택하게 되었던 즈음은 한국여성재단이 세상에 첫 발을 떼던 그 시기이기도 했으니,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쩌면 또래 친구라도 같다. 한국여성재단이 지나온 20년을 성찰하면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믿음을 숙고하는 노력이 여성운동에도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

홍미희
성남여성비전센터 센터장

**‘이 책이 후대 여성들을 위해 여성재단이라는
큰 디딤돌을 놓아준 선배들에게 작은 헌정이라도 되길’**

한국여성재단 20주년 기념 단행본 발간 기획과 저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저 피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여성재단의 20년 역사는 마땅히 기록되어야 할 여성운동의 역사라는 것을 여성운동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재단의 개별 사업들이나 재단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기록들은 소식지나 보고서 등에 여기저기 흩어져 방대한 기록물론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단 창립과 발전과정을 전반적으로 조망한 글이나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재단 연구사업팀장으로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재단의 수많은 기록물을 볼 기회가 없었던데다, 또한 이 책을 기획할 당시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진 프리랜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대담한 기획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재단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재단의 20년 역사를 한 권의 책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야말로 여성재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 소중한 과정을 통해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한국여성재단 20주년 기념 단행본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 이 책이 후대 여성들을 위해 여성재단이라는 큰 디딤돌을 놓아준 선배들에게 작은 헌정이라도 되길 바란다. 10년, 20년이 지난 후회자들이 모여 이 책을 중요한 자료 습마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온 여성재단의 역사를 새로 쓰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W

인터뷰. 지원사업팀 윤연숙 팀장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다>는 '재단 사용 안내서'



여성학자 최형미

평소 차이, 교차성, 다양성에 관심 갖고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으로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사)여성환경연대 부설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에 몸담고 있다. 실수 투성이, 꼼꼼함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내가 40대 중반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것은 아마도 실수였을 것이다. 졸업한들 배운 게 많아 무거운 고철 같은 너를 어디에 쓰겠냐고, 애나 잘 키우라는 주변의 만류를 뒤로하고 시작한 공부에서 만난 분이 장필화 교수님이다. 실수하면 기다려 주신 분, 넓은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주셨다. 그분이 여성재단의 수장이 되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이제 나는 100인 기부 릴레이에 이끔이로 참여하며 선생님과 함께 끌고 당기며 딸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서평

재단은 돈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면 됐지, 누가 읽으라고 책으로 발간했을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라 했는데, 어찌자고 재단은 이런저런 좋은 일을 했다는 책까지 써서 세상에 알린단 말인가? 질문 속에 책을 펼쳐 들었다.

우선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다>는 '재단 사용 안내서'였다. 여성운동을 하며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면 여성재단에 연락하라. 여성재단은 여성운동이 돌파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역동적으로 지원해왔다. 애초부터 여성재단은 여성운동을 지원하겠다고 맘먹고 만들어진 맞춤형 재단이었다. 홍미희는 그러한 역사를 촘촘하게 소개했고, 김은희는 그런 여성재단을 '벋다리', '비빌언덕', '밑둥'이라 칭했다. 여성운동가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친해져야 할 곳이다.

여성재단을 여성운동가들의 든든한 지갑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여성재단은 여성 임파워먼트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지혜로운 큰언니 같다.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서로 연결하고 자조집단을 만들어 고립되지 않고 실질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송다영은 여성재단이 여성을 자부심을 가진 주체로 만드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여성운동과 닮아 있다.

여성재단은 여성교육을 임파워의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간리더 교육, 활동가 대학원교육, 각 대학기관을 통한 여성운동가 교육 등 전략이 다양하다. 김영선은 교육과 연관된 재단의 역할을 소개한다. 재단은 심지어 여행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여성 운동가들의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들은 여성운동가들을 지원하려고 애쓰며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마다 한 시간씩 여성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여성들의 공공재가 아닌가?

재단은 오랫동안 '여성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름이 너무 평범해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일까 싶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려는 물처럼 투명한 이름을 썼나보다. 소비로 자신을 나타내며 경쟁에 익숙한 젊은 페미니스트, 국가의 전략으로 제도화된 페미니즘을 누렸던 중년세대, 김엘리는 이런 불편한 만남이 변화의 현장으로 나가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말한다.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다>를 읽고 나니 재단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내놓고 재단이 여성운동 편을 드는데, 여성재단 편을 누가 들까 되문게 되었다. **W**

증언과 구술의 번역, 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



제 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 현장(사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공)

한국여성재단은 2020 <수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 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을 지원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기로 한 행사가 코로나19 이슈로 온라인으로 형태가 전환되면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도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개 방법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사전신청을 완료한 100여명의 사람들이 랜선을 통해 포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 섹션은 매해 가장 긴급한 여성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영화상영과 집중토론을 마련하는데, 여성영화제의 정체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올해 쟁점 섹션의 포럼은 “증언과 구술의 번역-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논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군 위안부' 운동의 중심성이 해체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전시 성폭력의 구조와 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 군위안부 피해자의 구술과 증언이

번역되고 소통되어 온 방식을 살펴보면서, 현재 과열의 에너지들을 새로운 시대의 운동과 관점을 형성하는 힘으로 전환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쟁점 포럼은 최근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위안부 운동'의 중심성이 해체되고 있는 이때, 전시 성폭력과 위안부 피해자를 다뤄 온 운동과 재현물(극영화, 다큐멘터리, 소설, 증언/구술집)의 역사와 각 차이들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담론과 실천에 개입을 제안하는 자리로 이뤄졌는데요. 이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관련 영화상영과, 기조발제, 패널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쟁점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기조발제에서는 최근의 상황을 종합하며, 위안부 피해자 운동과 연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쟁점들을 짚었고, 패널 토론에서는 각 발표 주제에 대한 상세한 토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화제 상영 영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 진행 구성

기조발언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사회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발표	정유진(전 도시사대학 조교수, 한일관계 전공) 황미요조(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강유가람(<이태원>, <우리는 매일매일> 감독)
라운드 테이블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윤덕(그림책 작가) 김영미(구산동 도서관마을 사서) 박문철(<보드랍게> 감독)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권김현영 연구자의 사회 하에 ‘전시 성폭력의 구조’(정유진, 전 도시사대학 조교수, 한일관계학 전공) - ‘위안부 피해자 다큐멘터리 분석’(황미요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 ‘증언/구술기록이 번역, 소통되어 온 역사_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중심으로’(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등의 패널들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황미요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쟁점 섹션에서 상영한 다섯 편의 영화는 큰 틀에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증언을 중심으로 둔 영화들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 영화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나의 국민국가(민족국가)틀 안에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초국적으로 혹은 탈국가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가능한지 등 문제를 던지고 있다라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 이용수 씨와 공유되지 못한 20년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평소 이용수 할머니는 그간 세간의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라는 말을 피하고 ‘저는 이용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빌려 ‘위안부’ 피해는 아직 ‘더럽고, 듣기 싫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라며 할머니에게 있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위안부’ 피해를 정신대나 성노예 등으로 표현해서 일본 사람들이 될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전 도시사대학 조교수는 ‘말은 듣는 사람의 이해 관계에 의해 재구성된다’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2020년 한국사회는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 역시 관제 시민운동의 희생자로서 이용수 할머니를 바라본다면, 기자회견 후 등장한 ‘우리 이용수 할머니’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우리 편으로 회수, 공격 피해의 사적화가 극대화된다며 ‘할머니’라는 호칭은 우리 사회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지위와 성격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들이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일본을 의식한 관계에서만 그들의 존재(가치)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머니라는 성 역할과 관련된 언어로 속박되어왔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쟁점포럼은 ‘쟁점들’ 섹션 5편의 영화 상영과 함께 장 장 4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총 5편의 영화들이 제시하는 각기 다른 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의 구술과 증언이 번역되고 소통되어 온 방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무색할 만큼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군위안부 여성의 사회적 위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30년의 세월 동안 위안부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등을 되묻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W**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997년 시작하여 22회를 맞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의 여성주제 영화들을 모아 상영하고,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과 깊이 있는 학술, 토크 이벤트를 조직하여 영화계 내 성평등과 여성주의의 확산, 성인지 감수성 증대에 기여해왔다.

나눔기획팀 **조소희** 대리

혼자 사는 여자 히스토리, <비혼 1세대의 탄생>



‘비혼 1세대의 탄생’

‘2019 변화를만드는여성리더지원사업’으로 발간된 책 <비혼 1세대의 탄생>을 저술한 홍재희 작가는 이 책을 통해 X세대로 대변되는 비혼 1세대가 어떤 배경에서 출현했고, 이들이 중년에 이른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비혼 1세대 당사자인 저자의 삶을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혼자 사는 여자, 비혼 1세대 홍재희 작가의 스토리, 지금 바로 인터뷰로 확인하시죠.

1. <비혼 1세대의 탄생>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혼 여성 노동자로서 사십대를 관통하여 살아가면서 문득 제 자신이 20-30대와는 다른 지점에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더 이상 젊지 않았죠. 게다가 과거에도 가난했는데 중년인 지금도 가난하다는 것이 뼈를 때리더군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까라는 의문. 한국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늙어서까지 자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된 거죠. 세상에는 저처럼 사는 비혼도 있고 다르게 사는 비혼도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혼이 소수이거나 예외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다수이자 주류가 될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각기 다른 형태의 비혼, 다양한 비혼의 삶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

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하면 고민이지만 함께 나누면 소통이라고 합니다. 비혼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연결되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머지않아 또 가장 빠르게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앞으로 결혼 유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결혼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자유, 혼자 살거나 함께 살 자유, 가족을 꾸리거나 꾸리지 않을 자유, 동거하거나 이혼할 자유 등, 개인이 제각각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도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고, 비혼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삶이 존재하고, 혈연 가족이 아닌 서로 다른 개인끼리 생활동반자를 맺는 삶이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무엇보다 그 미래의 가장 앞줄에 비혼 여성들이 손을 맞잡고 당당히 걸어가고 있으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3. 책에서 ‘왜 여성이 더 가난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본래 작가님께서서는 대한민국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는지 궁금하며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그럼요.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여성의 삶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가정환경 탓도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원체 조숙한 편이었어요. 부모나 선생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니었죠. 의문이 생기면 언제나 왜? 라고 묻는, 겁 없는 아이였습니다. 집에

서든 학교에서든 성차별에 반감이 심했고 불평등에 매우 민감했고요. 여자라서 여자답게 여자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이래 저래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젠더 차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4. 2020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삶, 실업 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 등에 대한 생각과 현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비판적인 낙천주의자이거나 에피쿠로스적인 회의론자에 가깝습니다. 소비만능과 개발 성장제일이라는 자본주의에 포획당한 삶 대신 진짜 행복을 위해 살기로 한 '에피큐리언'이라고나 할까요? 사람이 50평, 100평의 집에 산들 하루 종일 그 공간을 다 돌아다니며 살지 않습니다. 종일 머무는 곳, 자주 있는 곳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예요. 제가 사는 동네는 공원과 도서관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마당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돼요. 걸어서 다닙니다. 매일 자연을 보며 산책합니다. 서재가 없어도 도서관이 지척이고, 아파트 놀이터, 소품몰 대신 산 전체가 공원이죠. 부족한 대로 누릴 게 많습니다.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 노멀 시대에 가장 좋은 삶의 형태는 바로 소유가 아니라 공유가 앞으로 우리를 일상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을 말씀해주시고 재단에 바라는 게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혼 1세대의 탄생>을 준비하던 차에 한국여성재단의 <2019 변화를만드는여성리더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처럼 정말 간절히 바라던분이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제 책에 프리랜서의 경제적 곤궁함에 대해 토론했듯이 전업 작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술인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 역시 기혼 또는 신혼 부부 중심이거나 청년 실업 층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년 비혼 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성 예술인 중에는 비혼이 유독 많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은 단발성 1회에 한하므로 여성 예술인

들을 위해 다른 중장기 발전 기금을 모색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기금이거나 신탁 은행을 운영한다면? 많은 여성 예술인이 대출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카드빚을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술인 은행 또는 보험 같은 형식으로 기존 지원을 받은 작가군을 기반으로 작가들의 향후 작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면지요. 여성 예술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소통 창구로 활성화시키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W

모두 결혼에 편입될 때 다른 길로 나아간 여성들이 있다. 20, 30대를 거쳐 이제 중년이 된 그녀들의 '비혼 판통기'

결혼 아니면 비혼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나로 자유롭게 살 길은 없을까

이 책을 읽을 당신에게

나의 친구, 언니, 동지인 비혼 1세대. 이 책이 앞에서 이끄는 손이라면 나도 뒤에서 미는 손이 되겠다. 우리는 함께 걷는 발이 될 것이다. ● 이유나(북디자인), 30대 후반

언젠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비혼 선택들을 찾기 어려워 홀로 서는 미래를 잘 그려 내지 못했다. 막연하던 대안적 삶이 활자로 펼쳐지니 괜히 용기가 생긴다. ● 세윤지(출판노동자), 20대 후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행복을 선택한다. 이 책이 우리의 성명서다. ● 조현경(기타 '요요무덤' 운영), 40대 중반

비혼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막막했고, 그래서 두려웠다. 이 책은 비혼으로 맞이할지 모를 나의 중년을 구체적으로 그려게 했다. ● 한의영(출판편집자), 30대 초반

여전히 누군가는 비혼으로 살아가는 나를 가엽게 바라보지만, 그 시선은 그들의 것일 뿐이다. 나는 오늘도 자유롭게 춤을 춘다. ● 정유령('정유령 무용단' 대표), 50대 중반

결혼은 쉽지만 혼자서 두려운 이들을 위한 동반서

비혼 1세대의 탄생

인터뷰. 나눔기획팀 조소희 대리

생전 처음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이케아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양육미혼모지원사업 <Mom-Up Project>. 이 사업은 2017년에 이어 3회째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11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총 34가정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조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7월에는 양육미혼모가정과 이케아가 1:1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홈퍼니싱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 각 가정별 공간 및 자녀의 특성(성별, 연령 등)에 맞는 공부방을 위한 가구 선택 및 배치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어떤 가구가 좋을지 고민해서 고른 가구가 배송되는 날, 바로 아이의 ‘공부방’이 드디어 마련된 날! 아이에겐 생전 처음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고, 엄마는 아이의 기쁨과 성장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됐습니다.

후기 1. 참가자 강OO

눈이 부시게 새하얀 가구로 말끔하게 꾸민 아이 방을 보니 장작 8개월간의 맘업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작년 11월, 처음 공고를 보던 날 아이방을 꼭 꾸며주고 싶은 마음에 5세 이상 우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3세였던 아이의 사연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원서를 작성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정되어서 매일 같이 이케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직접 매장에 가서 어떤 가구로 꾸며줘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가구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번 밖에 꾸며줄 수 없는 방을 마냥 아이방처럼 알록달록 꾸며줬다가는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 즈음에 다시 새로운 가구들을 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면서도 최대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가구 위주로 골랐습니다. 열심히 직접 고른 가구를 지원받아서 그런지 더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방에서 독립해서 나가더라도 제가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듭니다. 오래오래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자조모임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영상으로 짧게나마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별칭 분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자조모임은 일정을 정할 때 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최대한 엄마들 스케줄을 배려해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을 때 소요되었을 간식, 식사비 교통비 등을 일일이 계산해 현금 지원해 주시는 등 세심한 마음결이 느껴졌습니다.

후기 2. 참가자 김OO

아이의 공부방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아이의 방이 완성된 것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작은 방이 어수선하게 박스로 쌓아 물건을 정리해 두었을 때는 아이가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도 위협해서 불안했고, 놀다가 휴여 박스가 넘어져 다칠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작은 방을 아이의 방으로 꾸며주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아이에게 방을 꾸며 줄

업무도 못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공부방을 지원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깔끔해진 아이의 방과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번 맘업 프로젝트 지원은 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보답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3. 참가자 문OO

저는 자활을 다니면서 자활센터장님과 주변 분들의 정보와 지지로 인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경험과 정보 및 지원으로 인해 아들과 누리지 못했었던 물품과 생활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걱정을 안고 고양점 이케아에 방문했을 당시 이케아 담당자분들께 넘치는 신뢰와 친절을 받고 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많은 정보와 혜택을 주려고 안내해주신 담당자님과 옆에서 직접 발로 나서서 저를 안내하며, 물품 선정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많은 배려와 친절함 넘치도록 받고 왔습니다. 덕분에 빠른 결정과 확실한 물품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리 안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아이 방에 마치 마법처럼 환하게, 그동안 꿈꿔왔던 그림처럼..

또 하나의 같이 즐길 공간이 생겨 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 또한 늘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바라던 대로 방을 꾸미게 되었고, 꾸미면서 제가 바라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은 자기만의 완전한 놀이공간이 생겨 즐거워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은 확인을 하고, 또 하고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묻기도 합니다. 엄마인 저도 익숙지 않아서인지 몇 번씩 둘러보곤 합니다.

아직은 정리 중인긴 하지만 하나하나 늘려가며, 하나하나 같이 꾸며가며, 그렇게 잘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며 진행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으로 수월하게



자녀 방 개선 후1



자녀 방 개선 후2

물품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꼼꼼하게, 깔끔한 뒤처리와 설명 등 3시간 30분 이상 많은 고생 하고 가셨습니다. 많은 것에 고맙습니다. 많은 것에 감사합니다. **W**

인터뷰.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진정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길



이계경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회장

한국여성재단 창립부터 함께해주신 한국의 대표 여성운동가이자 정치인이셨던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이계경 회장님. 지난 8월 12일 재단과 연합의 '여성 소상공인 경영지원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으로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된 이계경 회장과의 인터뷰입니다.

1. 그동안 여성과 관련된 이력 활동 사항을 소개해주세요.

1974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사회 중간집단 교육을 받은 이후, 젊은 여성들이 모여 여성 연극, 공연 및 문화제 등을 기획하였고 1983년 가정 폭력상담기관인 <여성의 전화>를 설립하였으며 1985년 여성사회연구회 회장으로 <여성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1988년에 (주)여성신문사를 설립하여 주간 여성신문 창간으로 15년간 대표이사 및 발행인을 역임했습니다. 신문사 대표를 하면서 1990년 성폭력 위기센터 추진위원장,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0년 정부 조직 개편위원으로 여성부 설립에 기여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이

절 성인지 예산 특별위원장으로 국가 재정에 성인지 예산을 최초로 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2. 최초로 여성운동에 참여한 시기와 그 배경, 인상적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974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사회 중간집단 교육을 받으며 여성운동에 눈뜨기 시작하였고 그 당시 여성계의 공통관심 이슈였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에 참여한 이후 젊은 여성들을 모아 의식화 교육, 여성연극공연, 여성문화제 등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여성의 성상품화를 조장하는 각종 미인대회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화여대 메이퀸 폐지를 위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전교생과 교수님들께 배포한 결과 1978년 폐지됐고 그 성과가 기억에 남습니다.

3.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의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계시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느낀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의 회장은 연합 소속 22개 법인 대표들이 순환제로 돌아가며 맡는데 제가 대표로 있는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인이 됨으로써 제가 이번 제8대 회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평소 여성운동을 하면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가부장제 문화권 타파를 위한 남성중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경제력이 여성의

힘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여성의 취업을 돕는 정책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에 묶인 여성들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 등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4.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어떤 곳인가요?

올해 15주년을 맞는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22개 법인의 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연대체입니다. 지역 거점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도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알선, 취업과 창업 지원 상담 등의 사업을 센터 역사 27년여 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20만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에 도움이 절실한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층 여성,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의 전 생애적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최근 '여성'과 관련해 가장 관심 가는 이슈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제도, 정책 개발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집단교육도 못하고 직장조차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시기에 여성들의 창업 욕구를 개발 지원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6. 회장님께서 한국여성재단 창립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며, 오랜 기부자이시기도 합니다. 재단에 기부 활동을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각 여성단체들이 후원행사를 똑같이 하면서 서로 품앗이하는 어려움을 벗어나 보다 더 큰 재원을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충당하여 여성을 위해 공동나눔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명이 여성재단 설립안을 그 당시 영부인이신 이희호 여사님께 요청하여 탄생한 것이 여성재단입니다. 여성재단 준비위원으로 창립 초기부터 설립에 관여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기부자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재단조차도 '여성'이 붙어있어서 다른 재단만큼 규모가 커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작은 액수라도 참여하는 여성재단이 되어 재정적 규모가 1000억원(?) 정도 되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7. 꿈꾸는 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재단과도 이런 것에 있어 협력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니까 임금이 낮고 여성이 많은 직종도 남성이 진출하면 상사는 남성이 되고 여성이 소외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바뀔 수 있는 진정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단과는 아직 재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여성계나 여성 개개인에게 더 많은 홍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8.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을 찾아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할 것입니다. **W**

인터뷰. 나눔기획팀 김슬지 차장

여성들의 일상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김혜원
WNC 대표

‘에바(EVA)’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5년차 크리에이터 김혜원 대표. 그는 여성인권 관련 이슈를 편하게 접하며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더블유엔씨(WNC)’를 설립했는데요. 김혜원 대표의 평소 가치관과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게 된 배경 등을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 본인 소개와 대표적인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현재 ‘여성들의 일상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라는 슬로건 하에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인권 관련 이슈를 편하게 접하며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더블유엔씨(WNC)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바(EVA)’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5년차 크리에이터입니다.

2. 비영리단체 WNC를 설립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저 혼자 여성인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현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으니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데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더 큰 지지와 힘을 얻으며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WNC입니다.

3. WNC는 어떤 곳이며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앞에서 간단히 소개 드린 것처럼, WNC는 ‘여성들의 일상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바라는데요. 이 슬로건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여성인권 관련 이슈를 접하는 데 있어 거북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인권이슈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안 이 가지는 중대성은 간과하지 않으면서 보다 일상속에서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역들에 녹여 표현하고 싶었어요. WNC에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일상속에서 지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대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비영리단체 설립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한 가지만 꼽자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전에 팀이나 단체를 꾸려 무언가를 해본 경험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일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단체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큰 걸림돌이나 어려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에 교내에서 처음으로 여성학 교양강의가 개설되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종종 떠오르고 있는 이슈라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강하게 됐습니다. 이 수업을 계기로 여태까지 무지한 채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오는 충격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나 자신도 여성으로 살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 삶 자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양한 여성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6. WNC에서 여성을 위해 최근 진행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무슨 내용일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1월에 진행한 전시회 프로젝트 'WOMAN'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여성 아티스트들과 여성 인터뷰이들이 모여 '여성의 삶'이란 주제로 전시를 열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인터뷰이들이 해당 주제에 맞게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 이를 작가님들이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방법으로 녹여내는 식의 전시회예요. 당시 추운 겨울, 굉장히 짧게 단 5일 동안만 진행했던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1천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어요.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주셨던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완벽하게 낯선 다른 여성을 만나고, 서로 그 어떠한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저 그 공간에 함께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연대감을 느낀다는 지점이었죠. 전시회 프

로젝트 외에도 '이아리' 작가님과 함께 진행한 데이트포력 캠페인 펀딩, 오프라인 소모임, 여성예술가 아트클래스, 서울스토퍼와 함께 한 성적대상화 MD제작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7. 최근 '여성'과 관련해 가장 관심 가는 이슈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지속가능성'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시대나 사회적 상황, 배경 등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넥스트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8. 대표님께서 올해 100인기부릴레이에 신규이름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자로 참여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소감과, 이름으로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점 등 에피소드가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름이 제안을 받고 이후에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캠페인이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게시물을 올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부'라는 형식이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데 가장 쉬우면서도 또 선뜻하기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성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돕고 참여하며 연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9. 꿈꾸는 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성별로 판단되거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등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W**

인터뷰. 나눔기획팀 조소희

故 윤정주를 기리며



故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윤정주소장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났고 무심했던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실감하였고 워드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새삼 궁금해집니다.

윤정주소장은 좋은 동료였습니다. 평상시 말수가 적었지만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운동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1999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상근자로 시작해 20년 넘게 활동을 이어가면서 좀처럼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다른 동료들 역시 그렇다고 생각해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곤 하는 활동가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재미있어 보이는 방송모니터링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예능프로그램 하나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서너 번은 돌려보아야 하고 이를 자막과 멘트 그대로 기록하는 일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독 모니터링 활동을 좋아했던 그녀가 프로젝트 마감시간에 쫓겨 밤샘작

업을 할 때면 단맛이 강한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가던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언니도 고생해’ 하던 그 목소리, 통통 부은 얼굴로 마주하던 다음날 아침의 장면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2004년 성평등적 방송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10년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성형조장 방송프로그램 ‘렛미인’을 폐지하는 등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늘 윤정주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유료방송이 도입된 시기,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자극적이고 성차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쏟아질 때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윤정주소장은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젠더 관점의 방송모니터링을 해온 그녀의 참여는 그동안의 위계적 관행과 남성 중심적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한 해 심의제제별 사유에서 단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던 양성평등조항 적용이 2018년 무려 39건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전체 심의제제 사유별 의결현황 적용조항의 6.7%를 차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방송통신심의연감, 2018).

이는 성차별적인 방송내용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조항이 아닌 품위유지조항이나 어린이청소년보호조항 등으로 에둘러 의견제시를 해오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정주의적 표현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표현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각 방송사가 젠더 감수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게 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이 그런 열심이 갑작스런 쓰러짐과 이별로 이어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만큼 자신을 돌보았어야 했다는, 그렇게 좀 더 오래 자신이 꿈꾸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이전의 편두통과 평소와 다른 어떤 신호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많은 NGO 활동가들이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보다 많은 일을 감당하고는 합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고 개인과 일상을 주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도전입니다. 빠듯한 재정과 이를 사람으로 메꾸는 오랜 관습들을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우회는 故 윤정주소장의 다하지 못한 꿈을 이어가고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윤정주기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은 윤소장과의 이별을 계기로 마련된 조의금 일부와 동료, 유족들의 모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소진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쓰이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추모 사업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성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여성재단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미디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부디 여성재단의 윤정주기금이 윤소장과 같은 꿈을 꾸는 활동가들의 일상을 격려하며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W**

기고.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강혜란

윤정주 기금 사용처

故 윤정주 활동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성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윤정주 1주기 기념 윤정주 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여성활동가
뇌·심혈관질환 건강 지원



여성활동가
건강증진비 지원



미디어 성평등
활동 지원

윤정주 기금 모금 캠페인 참여방법

윤정주 기금, 이렇게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기부신청



해피빈
“미디어 성평등 지원”



계좌이체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농협 317-0008-4738-1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 기부금 전달식

지난 7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이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한 ‘제18회 100인기부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한국여성재단에 4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이기순 이사장의 이번 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 진행되는 공무원 1%나눔의 일환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故 윤정주 1주기기념 윤정주기금> 기부금 전달식

지난 8월 6일,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 미디어를 위해 헌신하다 작고한 **故윤정주 1주기**를 기념하는 <윤정주기금>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윤정주 소장의 생전 뜻을 기리고자 유가족과 민우회가 모은 일천만원의 기금과 이기금을 확대하고자 진행되는 대중모금 캠페인 기부금은 여성활동가의 건강지원 및 미디어 성평등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지난 8월 12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여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본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업체 운영 패키지, 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1천 6백여 명의 여성 소상공인에게 전달됐다. 이를 통해 여성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디지털 플랫폼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와 업무 협약

지난 9월 17일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회장 양옥경)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 협력’,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 시즌3,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

재단은 유한킴벌리와 함께하는 '2020년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에 위치한 저소득 여성 청소년과 아동시설 퇴소 여성청년, 서울시 공공장소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약 100만 패드의 생리대를 기부했다.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은 단순히 생리대 지원을 넘어 성교육 콘텐츠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기본권과 건강권은 물론 '월경'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 부룬디 최정숙여고 지원 시작

2020-2021년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은 부룬디 부반자 주 무진다마을에 위치한 유일한 여고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제공을 통해 젠더 및 생식보건 인식을 개선하고 교복지원을 통해 위생개선 및 소속감 제고로 교육의 지속성을 목표로 한다. 2012년부터 추진된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은 여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2020년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는 특히 1인 가구 청년, 비혼 여성들의 참가 신청이 늘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의 신청이 많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3회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 최종 선발된 약 30인의 여성들은 마을버스기사로 취업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2020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제9기 장학생 선정

탈성매매 여성들의 대학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2020년 공모를 통해 신규 장학생 6명을 선정하고 2학기 장학금을 지원했다. 학업을 통해 자립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봄빛장학생들의 건강한 사회진출과 성장을 응원한다.

물품나눔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엔 (주)청세가 천연 세탁세제 '빨래약' 500개를 기부하여 미혼모협회 아이맘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혼모 및 한부모 여성 가장 320명에게 세탁세제를 전달했으며, 9월엔 에디토크컴퍼니(주)가 여성의류브랜드 '얼바닉30'의 의류 312개를 기부하여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 통해 전국 31곳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이용자에게 의류를 전달했다.

*집계기준일: 2020.07.01.~09.30.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귀남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병희 강병희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실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점금 강정민 강재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현선 강현숙 강현욱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석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아 고영진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재현 고주형 고지원 고재우 고현철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박숙희 박영선 박은숙 박지혜 박현미 박혜경 규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굿플라트 치과의원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민 권영선 권영숙 권예은 권은숙 권은재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희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는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삼 김경애 김경익 김경임 김경진 김경태 김경희 김광수 김광성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나인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대영치과의원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현 김동선 김동식 김동원 김동호 김동휘 김동희 김동술 김득현 김만현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태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정 김민아 김민주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걸 김복자 김복걸 김복일 김빈기 김상분 김상옥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택 김성태 김성해 김성환 김세연 김세희 김소영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솔지 김시온 김아라 김이나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연정 김엘리 김연혜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 김유순 김유진 김유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지 김인춘 김자현 김진디 김장림 김재수 김재삼 김재선 김재현 김재춘 김재현 김경기 김경태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순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 김 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원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욱 김태주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해인 김행욱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희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홍희 김희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미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희 남영주 남민순 남정민 남정인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닥터변 치과의원 당신애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숙경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의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는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우 문성원 문성희 문솔기 문승희 문시윤(문익식)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용 문재호 문정근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미래포럼 민경숙 민옥기 민혜인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연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의 박성주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에 박숙희 박순규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애순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선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유록 박은위 박은정 박은진 박은희 박의자 박이레 박익수 박재석 박재선 박재욱 박정근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혜 박지호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 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효희 박희욱 반정애 방윤혁 배기욱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우리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현영 배혜진 배혜화 백경자 백경호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순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순 변영선 변영우 변윤래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경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민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 수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윤선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환 성명중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지형 손진희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혜은 송현주 송혜영 송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근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연재 신영미 신원영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홍은 신주진 신지열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필규 신현수 신현옥 신현정 신호석 신희숙 신성자 신복길 신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의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세준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옥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정임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길숙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태경 양영희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애 엄시현 엄지영 엄태호 에디토크퍼니(주)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시대발전잡지글 여지현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미정 연미희 예은숙 오가영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훈 오수정 오승주 오양희 오연주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경 오 은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지원회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우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환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원 유희연 유한킴벌리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운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옥성희 옥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미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 수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지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윤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수입



- 기업지정기부금 60.2%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8.4%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6.3%
- 특정명의기금 2.5%
- 운영후원금 3.2%
- 기타수입 9.4%

(단위: 원)

항목	내용	금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949,234,647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여성가정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289,390,488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0,051,46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8,850,00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50,269,5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148,224,962
총 수입		1,576,021,057

지출



- 모금사업비 0.5%
- 배분사업비 86.4%
- 홍보사업비 1.7%
- 연구사업비 1.0%
- 경상비 21.8%
- 시설비 3.9%
- 영업손실 -15.3%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8,191,247
고유 목적 사업비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우리은행)		
	2. 소외여성 empowerment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봄빛장학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이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1,362,289,949
홍보사업비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교보생명)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7,523,679
	연구사업비	20주년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4,982,910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43,370,642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61,966,179
		영업손실	-242,303,549
총 지출		1,576,021,057	



창립 21주년 후원의 밤은
비대면으로 찾아갑니다.

COMING SOON!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후원계좌: 농협 317-0003-6724-91(예금주: 한국여성재단)

문의: 02.336.6463 womenfund@womenfund.or.kr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행복을 만드는 우리집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기업, 이케아

이케아는 언제나 우리 지역사회와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용도 변경, 수리,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2020년 부터 모든 매장·레스토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중단 목표
- 환경·사회적 책임에 따라 인증된 식재료 엄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자원 순환 지원 및 기후 변화 대응

- 제품에 사용하는 목화 100%, 목재 85% 지속가능한 공급처에서 확보
- 2030년까지 전체 제품에 재생 가능한 재료와 재활용 소재 100% 사용 목표
-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목표, 2016년 말부터 1,400톤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공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 직무·직급에 관계없이 전세계 직원이 다양성과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존중
- 모든 공급업체가 공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양육미혼모, 지역아동센터, 소아병동, 전통시장 등 지역사회 이웃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 공유

